

가족이 함께 읽고 감동할 수 있는 책 만들어야

《오체불만족》과 《그러니, 당신도 살아남아요》의 예

한기호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

문학서가 팔리지 않는 시대가 됐다. 국내의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일본에서는 금년 들어 문학작품의 판매가 25%나 격감했다. 이 때문에 문학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증폭됐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고 말 것인가? 결코 그럴 수는 없다. 우리는 이런 위기상황에서도 잘 팔리는 문학작품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하며, 나아가 그런 작품을 기획해내야만 한다.

화제성보다 감동적인 스토리가 호소력 얻어

《몽실 언니》(권정생, 창작과비평사)와 《오체불만족》(오토다케 히로타다, 창해)의 주인공은 모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다. 두 책은 어린 시절이 이야기의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도 닮았다. 《몽실 언니》는 해방 직후부터 50년대까지를 배경으로, 전쟁 때문에 가정과 사회가 파괴되고 개인의 삶이 피폐해진 상황 속에서도 착한 마음을 잃지 않는 몽실이와 동생 난남이가 겪는 세상살이를 눈물겹게 그리고 있다. 《오체불만족》은 주로 저자의 초등학교시절을 중심으로 자신과 세계의 관계를 자기 관점에서 서술해 감동을 안겨준다.

픽션이든 논픽션이든, 이 책들처럼 아이들의 생활이 중심이 되고 어른들도 읽을 수 있으며, 감동을 안겨주는 책들이 아니면 대형베스트셀러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됐다. 이 책들은 모두 텔레비전에서도 감동적인 얘기로 각색될 만한 스토리며, 실제 그런 힘 때문에 많이 팔려나갔다. 비록 극단적이기까지 한 이력을 가진 사람의 책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화제성보다 감동적인 스토리로 꾸며야 한다.

《오체불만족》을 기획해 일본에서만 470만부가 넘게 판매한 고단샤(講談社)가 또하나의 화제작을 펴냈다. 한 여성의 파란만장한 자전적 이야기

를 담은 《그러니, 당신도 살아남아요》(북하우스출간예정)가 그것. 지은이는 중학생 때 이지메(집단 괴롭힘)를 견딜 수 없어 할복자살을 기도했다가 겨우 살아난 뒤, 야쿠자와의 결혼생활, 이혼, 술집 접대부 생활을 거쳐 아버지 친구(이후 양아버지가 된다)의 도움으로 주택건축사, 사법서사 등을 거쳐 사법고시 합격, 변호사가 돼 소년갱생에 진력하고 있는 오히라 미츠오라는 33세 여성이다. 이 책은 출간된 지 2개월만에 102만부(3개월에 120만부)를 판매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

《오체불만족》은 오토다케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과연 인간은 무엇인가?'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게 한다면, 《그러니, 당신도...》는 고작해야 '인생이란 무엇인가?' 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오히라와 같은 경험의 소유자는 널려 있다. 단지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다는 것이 그녀만의 특이점이다.

《오체불만족》을 통해 아이들의 생활이 중심이 된 책의 가치를 절감한 고단샤는, 텔레비전의 다큐멘터리 프로를 통해 오히라를 알게 된 후 그녀의 책을 아예 아동용 책으로 펴냈다. 이지메와 공부의 중압감에 시달린 아동들의 자살이 급증하는 상황도 고려했다. 지은이에게는 이지메와 비행에 대해서 그때의 기분을 떠올려 당시를 재현해 줄 것과 중학교 졸업이 전부인 그녀가 주택건축사·사법서사·사법고시에 차례로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극명하게 써 줄 것을 요구했다. 시험을 치르기 전에는 어떻게 생활했으며, 수면시간은 얼마 정도였는지, 식사 중에 휴대폰 스테레오에 자신이 녹음한 문제와 해답을 들으며 공부할 때는 어떤 참고서를 사용했는지 등 시험을 치르려는 사람들에게 참고가 되는 사항을 매



우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을 요구했다. 성인들이 가장 관심있어 할 야쿠자와의 생활, 즉 '극도의 아내'였던 시대의 얘기는 완전히 배제했다.

어린이 도서라도 부모세대에게 감동 줘야

고단샤 아동국의 기획자인 아베 카오루가 《창(創)》 6월호에 쓴 기획성공사례에 따르면, 초고에서 핵심 내용은 그런 대로 읽을 만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형편없었다. 그러나 이 책은 기획자의 이런 전략에 따라 여러 차례 수정돼 최종 원고를 넘겨받을 수 있었다.

'지금은 살맛 나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니 당신도 이렇게 살아남아 주세요'라는 의미의 제목은 이해하기 쉽고 단순한 사고방식이라 우여곡절 끝에 채택됐다. 보통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건방진 것으로 비칠 수 있지만, 지은이의 경우에는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초판 2만부를 발행한 이 책은 아동용 책인데도 초기 독자는 주로 40~60대 여성이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나면서부터는 10~20대 연령층에서도 독자가 늘어 지금은 10~70대까지 폭넓은 독자층의 사랑을 받고 있다. 어머니가 사서 자식들에게도 읽어주고 싶다는 독후감이 출판사에 쇄도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처럼 책을 읽으려 들지 않는 어린 독자들을 염두에 둔 책이라도 부모세대에게 먼저 감동을 줘야 한다. 디지털 혁명이 진전될수록 이런 책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인간은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는 인간 그 자체의 인간다움에서 더욱 감동받기 때문이다. ●